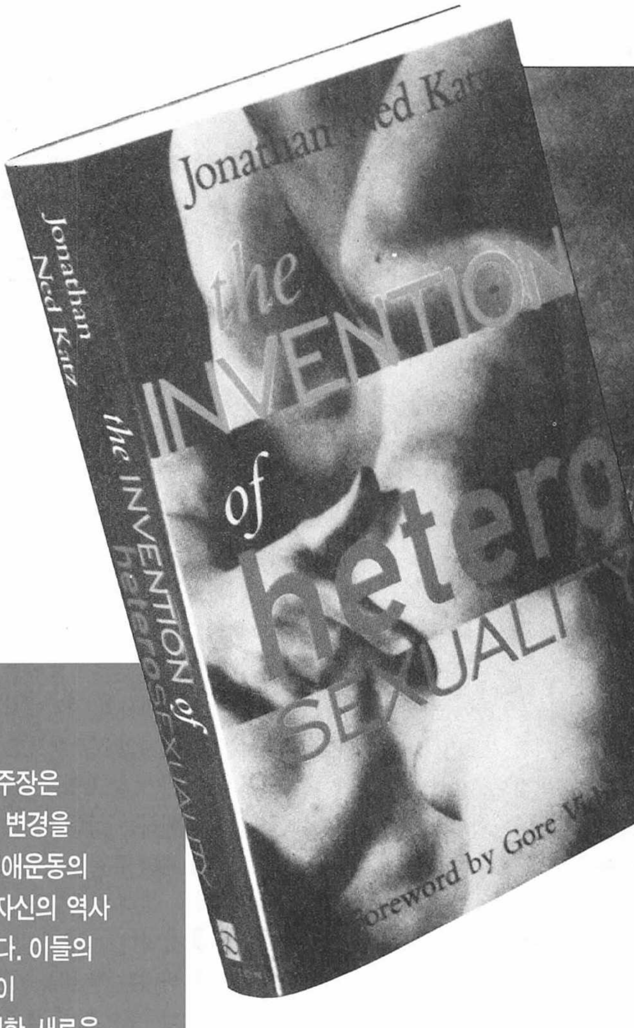
동성애의 자기인식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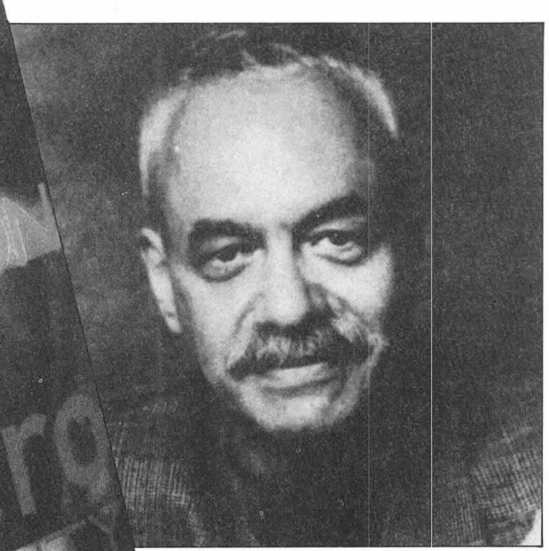
조나단 네드 카츠의 《헤테로섹슈얼리티의 발명》

김종엽
한양대 강사·사회학

노동계급의 발흥은 '노동계급의 역사'라는 감추어진 역사를 조명할 수 있는 지적 전망을 열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기존의 역사가 '역사'가 아니라 바로 '지배계급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여성이 공적 무대로 진출한 것은 여성의 역사라는 억압된 역사를 발굴할 수 있는 전망을 주었고, 이어서 기존의 역사가 '남성의 역사'라는 것을 밝혔다. 식민지 민중과 인종집단의 자기주장은 '피지배민족의 역사'와 예컨대 '흑인의 역사'를 복원하였으며, 기존의 역사를 지배민족과 지배인종의 역사로 재구성할 수 있게 해주었다. 소수집단의 자기주장은 항상 인식지평의 변경을 수반해온 것이다.

그렇다면 동성애 운동 또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동성애 운동의 발흥이 그들 자신의 역사의 재발굴로 나아갔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종래는 이들의 새로운 자기인식이 이성애 자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우리를 이끌리라고 예감할 수 있다. 카츠의 저서, 《헤테로섹슈얼리티의 발명》(*The Invention of Heterosexuality*, A Dutton Books, 1995)은 그런 의미에서 주목할 만한 저서이다. 이 저서는 바로 동성애의 자기인식이 이성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나아갔음을 보여주는 이론적 이정표이기 때문이다.





조나단 네드 카츠.

> 소수집단의 자기주장은 항상 인식지평의 변경을 수반해왔다. 동성애운동의 발흥 또한 그들 자신의 역사 재발굴로 나아갔다. 이들의 새로운 자기인식이 이성애 자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이끌 수 있음을 카츠의 저서는 보여주고 있다.

'푸코'로 충분한 이론적 탐구

물론 이성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카츠에서 처음 발원한다고 할 수는 없다. 카츠 자신도 추적하고 있듯이 사실 남성의 헤게모니 아래 구성된 사회구조에 대한 페미니즘의 도전 안에 이미 잠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확실히 페미니즘은 여성과 남성의 관계, 이성애 내의 관계에서 문제를 파악해왔으며, 그런 점에서 정면으로 이성애의 범주 자체에 도전했던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카츠의 이론적 탐구의 출발점은 페미니즘, 또는 레즈비언 이론가들이라기보다는 미셸 푸코라고 할 수 있다.

푸코는 이미 《성의 역사》 1권을 통하여 19세기가 개시한 "성에 대한 거창한 사냥" 진실의 소재지로서, 그리고 우리들 정체성의 핵으로서 자리를 부여받은 성의 영역을 탐사하였고, 이어서 우리들의 성적 자기인식과 자기관계가 역사적으로 특수하다는 것을 또다른 성적 자기관계의 역사로 보여주었다(《성의 역사》 2,3권). 그는 그리스의 아프로디지아가 우리의 섹슈얼리티와는 달리 인간을 헤테로와 호모로 분리하지 않고(즉 성적 속성을 인간적 속성으로 확장하지 않고), 단지 헤테로적 행위와 호모적 행위만을 구분하였다는 것을 분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카츠는 이런 푸코의 연구성과로부터, 푸코가 내딛지 못한 작은 인식론적 한 걸음을 내딛는다. 그러나 이 한 걸음은 작은 한 걸음이 아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작은 한 걸음이 바로 문턱을 넘어서는 걸음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푸코의 이론을 재구성하며, 역사적 자료들을 수집하고 재분류함으로써 호모섹슈얼리티와 마찬가지로 헤테로섹슈얼리티가 발명된 현장을 탐사한다. 호모섹슈얼리티와 마찬가지로 헤테로섹슈얼리티 또한 생식을 성생활의 핵심 규범으로 하던 의학 담론 속에서 비생식적인 성행위를 가리키는 정신병리학적 용어로서 출현하였다. 그리고 모두 도착적인 양자 사이에는 아무런 분할선이 존재하지 않았다.

처음에 도착적 성을 지시하던 이 용어가 성행위의 지배적인, 말없이 은밀히 작동하는 규범과 정상성으로 변형된 것은, 푸코의 표현을 빌리자면 성장치 자체의 역사적 변형에 기인하는 것이다. 즉 정상적 성개념 자체가 생식적인 것에서 관능적이고 쾌락추구적인 것으로 변형된 때문이다. 푸코는 이 과정에서 부부의 침실이 성적 담론의 중심에서 은밀히 증발하고, 주변적 성에 대한 의학적 담론이 증식된 과정을 추적하였다. 카츠는 이 과정이 비워진 중심의 위치를 대신 차지한 헤테로섹슈얼리티의 형성을 추적한다.

그에 의하면, 우리들 20세기 인류는 성과 사랑과 쾌락의 결합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이 결합이 야기하는 전복적인 힘을 제어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결합의 현장이 남성과 여성간의 성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성애의 담론이다. 그리고 이 배타적인 이성애 규범이 역으로 배타적인 동성애의 형성과 자기주장을 형성한다.

새로 씌어진 '다수자의 역사'

이렇게 새로 씌어진 다수자의 역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19세기 이래로 사람들은 《자본론》 이후에 자본주의 속에서 산다는 것을 고민하였다. 거슬러 올라가면 메리 월스톤크래프, 가까이로는 베티 프리던 이후에 사람들은 여성(또는 남성)과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해서 고민했다. 카츠의 저서는 겨우 문턱을 넘어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새로이 밝혀진 역사 이후, 그리고 더욱 더 전개될 이런 인식지평의 변경 이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토록 견고해 보이던 헤테로섹슈얼리의 자연적 외관이 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